

한국어문법론

韓國語法  
ไวยากรณ์ภาษาเกาหลี  
Gramática del coreano  
韓國語文法  
Gramática coreana  
कोरियाई व्याकरण  
Tata bahasa Korea  
Koreyaning grammatikasi  
Grammatik coreana  
ngữ pháp tiếng Hàn  
Грамматика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최순곤(崔順坤) 지음

1

한국어 문법

15 강

높임표현

2

15.1.

## 높임 표현의 종류

3/42

### 문법적인 형식

용언의 활용을 통한 높임	종결 어미를 통한 높임 선어말 어미 '-(으)시-'를 통한 높임
조사를 통한 높임	어근에 조사 '께, 께서'와 결합한다.
접미사를 통한 높임	어근에 접미사 '-님'과 결합한다.
어휘를 통한 높임	드리다, 모시다, 계시다; 진지, 치아, 약주

### 높임의 대상

발화 현장에서 말을 듣는 사람을 높임		상대 높임법
문장 속의 대상을 높임	주체를 높임	주체 높임법
	객체를 높임	상대 높임법

3

15.2.

## 주체 높임

### 간접 높임

4/42

- **높여서 표현해야 할 인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대상인 '신체의 일부분, 소유물, 병, 생각, 말, 사상' 등을 나타내는 말이 문장의 주어로 쓰일 때는 그 대상을 높여서 표현함**

15-1

가. 선생님께서는 귀가 크시다.

나. 할머니께서는 돈이 많으시다.

15-2

가. 사장님의 손톱이 빠지셨다.

나. 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까.

4

15.2.

## 주체 높임

### 압존법

5/42

- 주체가 청자보다 하위자인 경우 주체를 높이지 않는 경우

15-3

가. 할아버지, 아버지가 왔습니다. (원칙)

나. 할아버지, 아버지가 오셨어요. (허용)

🔍
**'계시다'와 '있으시다'**

아버지께서는 안방에 계신다. (주어 직접 높임)

아버지께서는 걱정거리가 있으시죠? (주어 간접 높임)

5

15.3.

## 상대 높임

### 격식체와 비격식체

6/42

구분	격식체(의례적)	비격식체(비의례적)
표현	직접적, 단정적, 객관적	부드럽고 비단정적, 주관적
어미	① 대체로 수효가 적다. ②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정도로 쓰임. ③ 비격식체보다 어조와의 결합이 풍부하지 않다.	① 수효가 많다. ② 의혹, 추측, 감탄 등의 여러 가지 느낌 표시 ③ 풍부한 어조와 결합해서 실현된다.
기능	① 상대방에게 당연히 표시해야 할 존경 표시 ② 상대방의 나이, 사회적 지위에 대한 합당한 대우 ③ 자신의 위치를 상대방과 대비해서 확인함.	① 격식체가 가지는 심리적 거리감 해소 ② 친근하고 융통성 있는 태도를 보여줌 ③ 개인적인 친화를 도모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해 줌

6

3

15.3.

## 상대 높임

### 격식체의 상대 높임법

7/42

문장 유형		격식체 형식	격식체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해라체
		아주 높임	예사 높임	예사 낮춤	아주 낮춤	
평서문	동사	-습니다	-(으)오/소	-네	-니다/는다/라	
	형용사	-습니다	-(으)오/소	-네/(으)이	-다/라	
	'이다'	-습니다	-오	-네/르세	-다	
감탄문	동사	-	-구려	-구먼	-구나	
	형용사	-	-구려	-네/(으)이	-구나	
	'이다'	-	-로구려	-로구먼	-로(더)구나	
의문문	동사	-습니까	-(으)오/소	-는가/니	-느냐	
	형용사	-습니다	-(으)오/소	-(으)는가	-(으)냐	
	'이다'	-습니까	-오	-는가	-냐	
명령문		-십시오	-오	-계	-어라/아라/라	
청유문		-시지요	-(으)십시오	-세	-자	

7

15.3.

## 상대 높임

### 격식체의 상대 높임법

8/42

**하십시오체**

청자를 가장 높이는 상대 높임 표현으로 자신보다 상위자에게 쓰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불특정 다수의 청자를 대상으로 쓰일 수 있다.

**하오체**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존중하는 등급으로 하계체보다 상대방을 대우하면서 말하거나 격식적 예의를 지킬 때 쓰인다. 주로 문어에서 나타나며 현대 국어에서 사용 빈도가 현저히 낮다.

8

9/42

15.3.

## 상대 높임

### 격식체의 상대 높임법

**하계체**

자기와 비슷하거나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존중해서 대우해 주는 데 쓰이는 등급으로 장인·장모가 사위에게 쓰거나, 교수가 제가에게 쓰는 것으로 현대 국어에서 사용 빈도가 줄어들고 있다.

**해라체**

가장 낮은 등급의 상대 높임 표현으로 자기와 비슷하거나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확실히 낮추어 말하는 등급이다.

	평서형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	감탄형
하심시오체	갑니다	갑니까?	가십시오	(가십시오)	-
하오체	가오	가오?	가오, 가는구려	갑시다	가는구려
하계체	가네	가는가?	가게	가세	가는구먼
해라체	간다	가느냐? 개냐?	가라, 가렴, 가려무나	가자	가는구나

9

10/42

15.3.

## 상대 높임

### 비격식체의 상대 높임법

문장 유형		비격식체 형식	비격식체	
			해요체 두루 높임	해체 두루 낮춤
평서문	동사/형용사	-아/어요	-아/어	
	'이다'	-아/어요	-야	
감탄문		-군요	-군	
의문문	동사/형용사	-아/어요	-아/어	
	'이다'	-아/어요	-야	
명령문		-아/어요	-아/어	
청유문		-아/어요	-아/어	

10

15.3.

## 상대 높임

### 비격식체의 상대 높임법

11/42

**해요체**

상대방을 두루 높이는 데 사용하는 등급으로 상대에게 거리를 두지 않고 개인적으로 편안하게 사용한다.

**해체**

상대방을 두루 낮추는 데 사용하는 등급으로 비격식적 상황에서 사용한다.

	평서형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	감탄형
해요체	가요 가지요	가요 가지요	가세요 가셔요	가세요 가셔요	가세요 가셔요
해체	가야, 가지	가. 가지	가. 가지	가. 가지	가. 가지

11

15.3.

## 상대 높임

### 비격식체의 상대 높임법

12/42

**하라체**

'하라체'는 상대 높임이 중화된 문체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문체로 상대 높임법의 등급으로 정하기 어렵다.

15-4

가. 다음 중 정답을 모두 고르라.

나. 오염수 무단 방류 ○○은 각성하라.

12

13/42

### 15.4. 객체 높임

-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로 표현되는 대상, 곧 서술의 객체를 높여서 표현하는 높임법으로 이때의 객체는 화자나 문장 속의 주체보다 상위자일 경우
- 동사에 '모시다, 드리다, 뵙다(뵈다), 여쭙다(여쭙다)' 등에 의해 실현되고, 객체가 높임 명사일 경우 조사 '께'와 결합하고, 접사 '-님'과 결합

15-5

가. 아버지가 할아버지께 뭔가 드렸습니다.  
 나. 할아버지, 작은아버지가 아버지한테 뭔가 주었습니다.

15-6

이것을 너의 아버지께 갖다 드려라.

13

14/42

### 15.5. 어휘에 의한 높임

동사		명사	
자다	주무시다	말	말씀
있다	계시다	밥	진지
먹다	잡수시다	이	치아
죽다	돌아가시다	술	약주
아프다	편찮으시다	집	덕
묻다	여쭙다	원고	옥고
주다	드리다		

자기를 낮추어 겸양을 나타내는 어휘도 있다.

저, 상서, 소생, 즐고, 비견

14

15/42

**15.6. 올바른 높임 표현**  
문장 호응 오류

아버지는 가정을 위해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한다.  
☞ ~ 께서는 ~ 일하신다.

너, 선생님이 빨리 오래. ☞ ~ 께서 ~ 오라셔

어머니는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다. ☞ 지으시고 계신다.

15

16/42

**15.6. 올바른 높임 표현**  
문장 호응 오류

아버지가 오빠에게 용돈을 드렸다. ☞ 아버지께서 ~ 주셨다.

할아버지께서 진지를 먹다가 나에게 물을 가져오시라고 하셨다.  
☞ ~ 잡수시다가 ~ 가져오라고 ~

16



17/42

**15.6. 올바른 높임 표현**  
**간접 높임 오류**

주례 선생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 있시겠습니다.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커피 나오셨습니다. ⇨ 나왔습니다.

신발 벗고 올라 가실게요. ⇨ 올라 가세요.

17

한국어 문법

16 강

**시제 표현**

18

16.1.

## 시제의 종류

19/42

16-1

가. 나는 송이를 만났다.

나. 이것은 마시던 커피이다.

다. 내일 학교에 간다.

(선어말 어미 '-았-')

(관형사형 어미 '-던')

(시간 부사어 '내일')

19

16.1.

## 시제의 종류

### 발화시와 사건시

20/42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20

21/42

16.1.

## 시제의 종류

### 절대 시제와 상대 시제

	위치	실현 방법
절대 시제	종속절, 내포문	관형사형 전성 어미
상대 시제	주절, 모문	선어말 어미

16-2

현서는 공부하는 송이를 보았다.  
                   현재 시제            과거 시제

16-3

가. 송이는 어제 마시던 커피는 마신다.                   (과거-현재)  
 나. 경주에 관광을 간 사람들은 감동을 받을 것이다.   (과거-미래)  
 다. 날씨가 추워서 코트를 입었다.                       (현재-과거)

21

22/42

16.2.

## 과거 시제

	동사	형용사	'이다'
선어말 어미	-ㄴ/는-	∅	∅
관형사형 전성 어미	-는	-(으)ㄴ	-(으)ㄴ
시간 부사어	지금, 요즘, 현재, 오늘 ...		

22

23/42

16.2. 과거 시제  
-ㄴ/는

-ㄴ/는-

서술어의 현재형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선어말 어미이다.

16-15

가. 현서가 책상에 앉아 책을 읽는다.  
나. 송이가 요즘 매우 바쁘다.  
다. 현서는 유명한 가수이다.

23

24/42

16.2. 과거 시제  
-ㄴ/는

16-16

가. 도서관에 책을 읽는 학생들이 많았다.  
나. 예쁜 꽃으로 장식하겠다.  
다. 소설가인 현서는 오늘도 글을 쓴다.

24

25/42

16.2. 과거 시제  
-았/었/였-

16-4

가. 나는 어제 쇼핑을 갔다.  
나. 소파에 앉아서 소설을 읽었다.  
다. 어제 밤을 새워서 피곤하였다.

16-5

가. 7시에 떠났으니 지금쯤 도착했을 것이다.  
나. 송이는 키가 컸으나 동생은 무척 작았다.  
다. \*종소리가 크게 울렸자 숨어 있던 병사들이 일제히 달려 나왔다.  
라. \*하인들은 물을 구하였으려 깊은 계곡까지 살살이 뒤졌다.

25

26/42

16.2. 과거 시제  
-았/었/였-

16-6

가. 현서는 엄마를 정말 많이 닮았다.  
나. 송이는 지금 의자에 앉았다.

16-7

가. 송이는 조금 전에 왔고, 현서는 지금 왔어.  
나.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16-8

가. 아직 숙제는 안 했어?  
나. 내일 학교에 가면 흔났다.  
다. 나도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26

27/42

16.2. 과거 시제  
-(으)ㄴ

16-9

가. 한국에서 가본 도시가 몇이나 되느냐?  
나. 그 이야기를 말해 준 사람에게서 다시 들었다.

27

28/42

16.2. 과거 시제  
-더-

16-10

그때 철수가 강아지를 차더라.  
☞ 나는 그때 철수가 강아지를 차는 것을 보았다고 너에게 알린다.

16-11

가. 그는 어제 갔다.  
나. 그는 어제 가더라.  
다. 그는 어제 갔더라.

16-12

이렇게 탈선 사고가 났으니 한 시간 후에나 출발하겠더라.

28

16.2. **과거 시제** 29/42  
**-던**

16-13

가. 이것은 내가 어제 마신 커피이다.  
나. 이것은 내가 어제 마시던 커피이다.  
다. 이것은 내가 어제 마셨던 커피이다.

29

16.2. **과거 시제** 30/42  
**-았/었-**

16-14

가. 나는 오늘 집에 왔다.  
나. 나는 어제 여의도에 갔었다.  
다. 송이도 의자에 앉았었다.

30

16.2.

과거 시제

31/42

16-16

가. 도서관에 책을 읽는 학생들이 많았다.

나. 예쁜 꽃으로 장식하겠다.

다. 소설가인 현서는 오늘도 글을 쓴다.

31

16.3.

현재 시제

32/42

	동사	형용사	'이다'
선어말 어미	-ㄴ/는-	∅	∅
관형사형 전성 어미	-는	-(으)ㄴ	-(으)ㄴ
시간 부사어	지금, 요즘, 현재, 오늘 ...		

32



16.3. 현재 시제  
-ㄴ/는-

33/42

16-15

가. 현서가 책상에 앉아 책을 읽는다.  
나. 송이가 요즘 매우 바쁘다.  
다. 현서는 유명한 가수이다.

33

16.3. 현재 시제  
-ㄴ/는-

34/42

16-16

가. 도서관에 책을 읽는 학생들이 많았다.  
나. 예쁜 꽃으로 장식하겠다.  
다. 소설가인 현서는 오늘도 글을 쓴다.

34

35/42

16.3. 현재 시제  
감탄문과 의문문의 시제

16-17

가. 현서가 서울에 가는구나!  
현서가 서울에 가느냐?  
나. 송이가 점심을 먹는구나!  
송이가 책을 먹느냐?

35

36/42

16.3. 현재 시제  
현재 시제의 특별한 용법

16-18

가. 아침마다 공원에서 운동을 한다.  
나.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다. 나는 내일 기차로 떠난다.

36

16.4.

미래 시제

37/42

	동사	형용사	-이다
선어말 어미		-겠-	
관형사형 전성 어미		-(으)ㄹ	
시간 부사어	앞으로, 내일, 내년, 장차, 나중에 ...		

37

16.4.

미래 시제

38/42

-겠-

16-19

가. 내일이면 8월이 <u>되겠다</u> .	(미래)
나. 내일도 비가 <u>오겠다</u> .	(추측)
다. 제가 먼저 <u>가겠습니다</u> .	(의지)
라. 그 정도의 문제는 <u>풀겠다</u> .	(가능성)

16-20

가. <u>어제</u> 제주에는 비가 많이 <u>왔</u> 겠구나.	(과거 추측)
나. <u>지금</u> 제주에는 비가 많이 <u>오</u> 겠구나.	(현재 추측)
다. <u>내일</u> 제주에는 비가 많이 <u>오</u> 겠구나.	(미래 추측)

38

39/42

**16.4. 미래 시제**  
-(으)ㄹ

16-21

가. 앞으로 읽어야 할 책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다.  
나. 합격할 때까지 열심히 공부했다.

16-22

가. 현서는 지금 도서관에 있을 것이다. (추측)  
나. 나는 그 일은 해내고 말 것이다. (의지)  
다. 오후쯤 설악산에 도착할 것이다. (가능성)

39

40/42

**16.5. 동작상의 유형**

16-23

가. 송이는 커피를 마시는 중이다.  
나. ?송이는 현서를 아는 중이다.  
다. ?송이는 커피를 안 마시는 중이다.

40

16.5.

## 동작상의 유형

### 진행상

41/42

보조 용언	-고 있다, -아/어 가다, -는 중이다 ...
연결 어미	-으면서, -느라고 ...

가. 송이가 책을 읽고 있었다. (과거 진행상)

나. 송이가 책을 읽고 있다. (현재 진행상)

다. 송이가 책을 읽고 있겠다. (미래 진행상)

16-24

송이가 책을 읽으면서 밥을 먹는다.

16-25

41

16.5.

## 동작상의 유형

### 완료상

42/42

보조 용언	-아/어 있다, -아/어 버리다 ...
연결 어미	-고, -고서, -다가 ...

가. 송이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 (과거 완료상)

나. 송이가 의자에 앉아 있다. (현재 완료상)

다. 송이가 의자에 앉아 있겠다. (미래 완료상)

16-26

송이는 밥을 먹고서 학교에 갔다.

16-27

42